

'30조 적자' 한전, 1600억 투입...캠퍼스는 '진행형'

졸속 개교 논란 '켄텍'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적자해소를 위한 지구책 실행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한전공대'라 불리는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켄텍)에 16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이 예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켄텍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전력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학교다.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워져 1기 모집 당시만 해도 높은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캠퍼스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채 진행된 1기 입학식이 공사장 한가운데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졸속 개교' 논란이 일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는 입학식은 지난 1기 입학식 때처럼 '공사장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강의동,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상철 켄텍 기획처장은 "2025년 10월 총 완공이 예정돼 있다"며 "지금 1차적으로 들어온 학생을 수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의 시작과 비교하면 오히려 좋은 환경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한 처장은 "다른 대학도 개교할 때 모든 여건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추고 개교한 뒤 추가 건설한다"며 "우선 완성된 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이다. 다른 학교의 시작과 비교해서 전혀 (형편없다거나) 그렇지 않다. 세계적인 대학 스탠포드나 다른 대학들이 처음 개교할 때 지어질 단계와 비교했을 때도 낫다"고 설명했다.

졸속 개교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번졌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수차례 고비를 넘긴 끝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 한지 160일(5개월) 만에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 1년여 만에 개교했는데, 당시 문 정부가 국정과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개교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지구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올초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

역대 최악 적자 한전, 올해 1588억 출연 문재인 정부 때 설립...에너지 인재 양성 '졸속 개교' 논란...“2025년 캠퍼스 완공” 정치이슈보단 에너지난 중장기 해결안

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은 올해 켄텍 설립운영을 위해 자회사를 포함 총 1588억원을 출연한다. 한전 본사가 1016억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회사 5곳 등이 57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출연금(711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자, 지원을 시작한 지난 202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자산매각 3700억원, 사업조정 4900억원, 전력구입비 2조2000억원 절감 등 총 3조8000억원의 재무개선 작업을 진행했지만 켄텍 투자에는 여전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법으로 '에너지 인재 양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인재 양성은 교육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켄텍은 학교 건물보다는 학생이 중요하고 정치이슈로 비화되기 보다는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인재 양성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처장은 "입학한 학생들 중 한 학생에게 왜 (켄텍에) 왔냐고 물어보니 켄텍에 가면 내가 고등학교 때 하던 실험과 논문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답했다. 이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보통 박사과정이나 교수가 하는 말이다"라며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혁신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빠른 시간내 단계별로 건물이 지어지고 완성해서 공부 환경이 완성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며 "내년 말이나 2025년초에 가면 소위 주거시설과 연구동이 지어진다. 그러면 대학원생들 연구실이 굉장히 넓게 필요할텐데 공간 대부분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다목적광장에서 입학식 및 비전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절반이 과학·영재고 출신, SKY 대신 택한 이유는?

올해 수시 12.6대 1·정시 60.3대 1 기록 작년 107명 중 45명 과학·영재고 출신 '창의성 면접' 보고 마음 바꾼 학생도

'졸속 개교' 논란을 빚은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켄텍)가 올해 30조원 적자인 한국전력의 1600억원 출연 소식이 더해지면서 비판에 휩싸였다. 하지만 논란과 달리 2년째 켄텍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며, 여타 이공대와 달리 의학대로 큰 이탈 없이 에너지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학부 모집 결과 수시 지원율은 12.6대 1, 정시는 60.3대 1로 집계됐다. 개교 첫 모집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타 과학기술원과 같은 높은 수준이다.

개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수시 24대 1을 기록, 등록률은 100%로 마감했다. 정시 지원율은 전국 최고치인 95.3대 1이다. 10명 모집에 953명이 지원한 셈이다.

지난해 3월 허허벌판에 건물 한 동으로 개교했을 때, 켄텍은 문재인 정부에 국정과제로 밀어붙여 5개월 만에 법안을 통과시켜 졸속 개교한 것이란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심지어 '한전공대'란 줄임 말 때문에 한전에 취업하는 인력을 양산하는 기술 대학이란 오해도 일었다. 이런 대학에 30조원 적자로 전기료 인상을 야기한 한전이 올해 1600억원을 출연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비판이 커졌다.

하지만 오해와 달리 켄텍은 2년째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찾아들고 있다. 한상철 켄텍 기획처장은 "한 입학생이 '고등학교에서 하던 실험과 논문을 켄텍에서라

2022년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출처 : 대학알리미)

2022학년도	총입학생수	일반고	과학고	자율고	기타	
					영재학교	외국고등학교 (국외소재학교)
합계	107	46	40	15	5	1

면 이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하더라. 석·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 아닌가"라며 "이처럼 에너지 분야에 진심으로 관심 있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통계도 이를 입증한다. 대학알리미가 공개한 켄텍 입학생의 고등학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입학생 107명 중 절반 가까이 과학고(40명)와 영재학교(5명) 출신이다. 자율고(15명)와 국외 소재 외국고(1명)까지 합하면 우수 인재가 과반을 넘는다. 이 같은 비율은 올해 입학생 모집에서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 동 짜리 건물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 개교 비판에도 반박했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란 의미다. 이미 학교 비전과 교육 방식, 교수진 비율 등을 보고 우수한 학생들이 건물 실체가 없을 때부터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장광재 켄텍 입학센터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켄텍을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70%가 '자신'을 꼽았다"며 "요즘 이공계에서는 적성보다 공부 잘하면 의·치대에 가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소위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SKY(서울·고려·연세대) 에너지공학과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아직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 학교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과학교 출신 한 입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미 다른 학교에 붙은 상태라 전혀 켄텍을 선택지에 두지 않고 그냥 면접이나 보자는 식으로 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가 실시하는 '창의성 면접'을 본 뒤 마음을 바꿨다"며 "켄텍이 '자신의 향기를 맡아줄 수 있는 학교'로 느꼈다고 표현하더라"라고 전했다.

켄텍에서 개발한 수시 입시모집 과정 중 하나인 창의성 면접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식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장 센터장은 건물 한 동 논란에 "첫 해 모집할 때는 심지어 건물도 없는, 그야말로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했다"며 "학생들에게 에너지 산업에 관심 있는지 자기 자신의 확신이 필요하냐 했다. 그렇다면 다른 곳과 비교해보라. 우리가 계획한 인프라, 교수진, 다양한 시도들은 다른 곳에서 시도하기 어렵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스스로 우리의 비전을 듣고 실제로 많은 우수한 인재가 지원했다. 1년 동안 공부해보니 우리 말이 맞았다고 생각해 큰 이탈 없이 계속 만족하며 다니고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진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활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